기쁨으로

| **김흥호** |

기쁨은 존재적이요, 즐거움은 소유로 인한 것이라면, 기독교의 본질은 기쁨이며 근원적임을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누가복음 2:1~20

그 근방 들에는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면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목자들이 겁에 질려 떠는 것을 보고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오늘 밤 너희의 구세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표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때에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기독교라고 하는 것 별거 아닙니다. 그저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가끔 믿음이 무엇이냐고 회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믿음도 별거 아닙니다. 그저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氣)가 뿜어 나오는 것이라고 늘 말합니다.

저기 지금 라디에이터에서 더운 김이 뿜어 나오지요. 여기 난로에서도 열이 뿜어 나오지요. 라디에이터에서 뿜어 나오는 것은 거기서 뿜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실의 보일러에 불이 붙고 기름이 타는, 그 근원적인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얕은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깊은 데서 – 깊음과 기쁨은 형제예요 – 뿜어 나오는 것이지 피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바울 선생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껍데기로 보면 슬픈 것 같지만 속으로 말하면 기쁘다고 말을 했습니다. 속에서 넘쳐 나오는 기쁨이 자꾸자꾸 터져 나와서 바울 선생처럼 나는 이제 며칠 있으면 죽는다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기쁨을 너희에게 전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내다보면서도, 내일 혹은 모레 십자가를 질 그 순간에 가서도 내가 나에게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전한다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평화” 그런데 그 번역이 다른 성경에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언제나 하늘에는 별이 빛나는 영광이 있고, 땅에는 무한한 풀밭 평화가 깃들고,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쁨이 넘쳐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 그것이 내 생각으로는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도 나에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살면 내 속에서 한없이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쁨이 터져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말과 '즐거움'이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다르게 구분합니다. 흔히는 그것을 구별하지 않지요. 조이(joy)라는 말과 플레저(pleasure)라는 말인데, 서로 다릅니다. '기쁨'이란 전체적인 것이고, '즐거움'이란 부분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쉬운 말로 바꿔 쓰라면 우리가 존재를 가졌을 때는 기쁨이요, 소유를 가졌을 때는 즐거움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존재'와 '소유'라는 말 많이 쓰지요. 존재란 전체적인 것이고, 소유란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가 돈을 가졌다, 무슨 권리를 가졌다, 학문을 가졌다, 이런 것은 다 하나의 즐거움에 속하는 것이지 기쁨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존재를 붙잡았을 때, 존재와 내가 연결되었을 때, 존재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었을 때, 라디에이터가 지하실의 보일러와 연결되었을 때 뿌리에서 나오는 기운이, 나무 잎사귀가 솟아나는 듯한 생명의 기운이 내 속에서 나올 때 느끼는 것이 기쁨입니다. 쉬운 비유로 말하면 어린애가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럴 때는 기뻐하지요. 그러나 어린애가 장남감이나 먹을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즐거운 겁니다.

즐거움의 반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에요. 기쁨은 가졌어도 즐거움은 못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고통과 기쁨을 같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계속 터져 나오는 기쁨을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는 거지요.

어린애가 먹을 것이 없고, 장남감도 없고, 아무것이 없어도 엄마! 그러면 기쁜 거지요. 그러나 어머니가 없다, 그럴 때에는 장남감도 먹을 것도 태산 같이 갖다 주어도 그 애에게 기쁨은 없는 겁니다. 슬픔이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즐거움은 있게 할 수 있고, 고통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원에 가서 잘 해주면 그 아이들의 고통은 없이 할 수가 있고, 대신 즐거움은 있게 할 수 있지만 그 애들에게 어머니를 안겨 주지 않는 한 기쁨은 없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이 우리말의 개념으로는 구별이 잘 안 되지만, 근원적이라는 전체적인 어머니 같은 존재와 우리가 딱 부딪쳐서 연결되면, 한없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어떤 무엇을 소유할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즐거움이라고 생각할 때, 인간은 하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누구나 다 비관, 회의, 허무에 빠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허무하다든가, 의심스럽다든가, 슬프다든가 하는 것은 나와 어떤 존재, 즉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뿌리가 없어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뿌리가 생길 때, 근원적인 것을 가졌을 때, 얼마든지 힘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반석이다." "하나님은 반석이다." 그렇게 자꾸 '반석이다, 반석이다' 하는 말은 그 위에 서면 튼튼하고, 자신이 있고, 힘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을 가지면 기운이 쑥쑥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이 뒤에 엄마나 아빠가 있으면 힘이 생겨, 나가서 싸움도 잘하지만 아버지가 뒤에 없으면 그만 밀려나오고 맙니다. 언제나 맥이 빠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반드시 근원적인 것, 요새 사람들은 '존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존재가 밑받침되어 있어야 언제나 자신만만

하고, 언제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힘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생의 의미를 다시 찾으면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생의 의미를 상실하면 그만 인생은 허무해지고 맥이 빠지고 힘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찾았는가, 그것을 발견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찾았는가, 그것을 발견했는가, 이 고유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인간의 참 의미를 찾아주기 위해 오신 이가 누군가? 예수입니다.

예수는 누군가?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하는 존재,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해준다. 뿌리와 가지, 벽의 라디에이터와 지하실의 보일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만나게 해줍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하늘의 구름 같아요. 구름 운(雲) 자는 비 우(雨) 밑에 말씀 운(云) 자를 써요. 그러니까 구름 운(雲)에 비 우(雨)를 떼어버리면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구름이란 하늘 어디에나 안 가는 데가 없지요. 어떤 때는 구름이 하늘에 꽉 찰 때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구름이란 하늘을 다 알고도 남지요.

시시콜콜하게 하늘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존재, 그것이 누군가? 구름이요, 말씀입니다. 하늘을 가장 잘 아는 존재,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땅 어디까지나 가는 것을 나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은 어디든 스며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땅 어디를 파도 물이 나와요. 땅을 제일 잘 아는 존재, 그것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말을 구름이 물이 되었다 하

기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존재를 붙잡았을 때, 존재와 내가 연결되었을 때
뿌리에서 나오는 기운이, 나무 잎사귀가 솟아나는 듯한 생명의 기운이
내 속에서 나올 때 느끼는 것이 기쁨입니다.

는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물이 됩니다. 하늘에 있는 구름이 물이 되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비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인가. 비라는 말이지요. 결국 하늘과 땅을 가장 잘 아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을 잘 알고, 땅을 잘 알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에 있는 중매인 비슷한 거지요. 남자를 잘 알고, 여자를 제일 잘 알아 구름이 되고, 땅을 제일 잘 아는 물이 된다. 그렇게 해서 하늘과 땅을 중매한다고 해서 성경에서는 중보(仲保)라는 말을 씁니다. 하늘과 땅을 만나게 해준다, 중보자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는 중보자라고 했어요. 그 중보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비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분은 하늘과 땅을 만나게 해준다.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만나게 해주면 이 우주 만물이 무성하게 되어 말씀으로 지음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오고 참되고 아름다운 세계로 커갈 때 하늘에도 기쁨, 땅에도 기쁨, 사람에게도 기쁨, 그래서 기쁨이 넘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중보라는 말인 동시에, 마가복음의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의 임마누엘, 누가복음의 기쁨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넷이 합해져서 중보 없이, 하나님의 아들 없이, 임마누엘 없이 기쁨이라는 것은 없게 되는 거지요. 반드시 이 넷이 함께 합해질 때 '크리스마스'라는 새로운 사건이, 새로운 창조가 이룩되는 것이지요. 본래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인지는

모르지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양떼들이 나가서 풀을 뜯어먹고 밤에 목자들이 양떼들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유태에서는 가을이랍니다. 아마 10월경이겠지요.

그런데 왜 10월로 정하지 않고 12월로 정하였나, 그건 교회에서 그렇게 잡은 거지요. 왜 그렇게 교회에서 잡았나 하면 기독교가 로마를 4세기에 이겼어요. 그러고 지금까지 땅속에 있던 교인들이 전부 밖으로 나왔어요. 땅속에 있는 것을 '카타콤(catacomb)'이라 했습니다. 땅속에 있는 교인들이 밖으로 나올 때 무엇을 느꼈냐면 예수의 탄생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어린애가 나오듯이 땅속에서 모든 교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자.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자.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하자. 12월 25일은 로마의 가장 큰 명절이었어요. 우리가 로마를 정복했으니 로마 사람들이 지키던 가장 큰 명절까지도 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의 가장 큰 명절이 크리스마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언제인가, 동지 다음날이에요. 오늘이 21일인데 내일이 22일, 동짓날이에요. 사실 금년의 크리스마스는 23일이 되어야 해요. 동지라고 하는 것은 밤이 가장 길고, 이 세상에 암흑이 가장 긴 때예요. 그러다가 동지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 다시 밝은 빛이 시작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이 세상에 온 빛이다"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은 빛이라는 것, 우리가 다 알지요. '나는 빛이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나는 진리다'와 같은 말입니다. 나는 빛이다. 이 빛이 처음으로 살아나는 그 시간이 동지 다음날이에요. 그런데 기상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동짓날이 21일이 되는 해도 있어요. 22일이 되는 해도, 23일, 24일이 되는 해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틀

어서 25일로 정하자. 그래서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었어요.

12월 25일이 로마의 큰 명절이기도 했지만 기독교인들이 이날을 크리스마스로 정한 이유는 빛이 처음으로 살아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또 아침에 해가 뜰 때 얼마나 좋아요. 아침 싫다는 사람 없지요. 다 굿모닝 그러지요. 크리스마스란 정말 굿모닝이에요. 빛이 살아나는 아침이에요. 어디에 빛이 살아납니까? 우리 마음속에 빛이 살아나고, 마음속이 밝아지고, 명랑해지고, 유쾌해지고, 그리고 속에서 기운이 터져 나오고, 힘이 솟아나고, 결국은 건강해집니다.

나는 건강한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힘이 있고, 빛이 있고. 퀘이커파의 창시자 폭스(George Fox)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과 힘을 얻었다"고 했어요.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과 힘을 가진 사람, 그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끝)

• 이 글은『김흥호 사상 전집-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흥호** | 다석 유영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항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